

# 협회 소식

## ● 페타이어 재활용 현황 및 실태 조사차 일본 방문

협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5일간 일본의 페타이어 재활용과 관련한 현안사항 협의와 페타이어 재활용실태조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다. 우리협회의 이광복 부회장과 이종렬 환경대책팀 차장은 일본 자동차타이어협회(JATMA, Japan Automobile Tyre Manufacturers Association)와 일본 타이어 리사이클 협동조합(JSRA, Japan Scrap Tyre Recycling Association)을 방문하여 일본의 페타이어 리사이클 운용체계, 처리 및 현황과 페타이어 재활용사업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페타이어의 재활용실태조사를 위해 제지회사인 다이쇼와 판지 도호쿠(주), 브리지스톤 연구소 및 고무아스팔트 현장, 시멘트 회사인 미쓰비시 Material(주)와 일본 자원재생사업진흥 협동조합(Japan Material Recycling Association)를 방문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일본의 페타이어 발생량은 연간 1백만톤, 재활용량은 92만톤으로써 우리나라의 약 4배 수준이다. 페타이어 재활용율은 일본이 매립을 포함하여 92%인데 비해, 우리는 95~97%이며, 페타이어 재활용 용도 중 시멘트 등 열이용의 경우 공급량이 양국 모두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페타이어 재활용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열이용(시멘트 킬른용) 위주로 진전이 전망되며, 일본의 경우에도 고무아스팔트 등 페타이어의 물질재활용이 경제성이 낮아 극히 부진한 반면, 제지 및 시멘트 공장등의 열이용을 중심으로 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회는 향후에도 페타이어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일본측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 ● 화물트럭 대상 안전검사 실시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9~10일간 교통안전공단과 후부반사판 장착 캠페인과 함께 타이어업계와 공동으로 신정동 서부 화물트럭 터미널에서 화물트럭 타이어를 대상으로 한 무상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 협회는 고속도로상에서 타이어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타이어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 방법 홍보를 위해 매년 2~11월, 10회의 정기적인 무상 안전검사 및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화물트럭 터미널에서의 안전검사는 정기적인 안전검사와는 별도로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공단과의 공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안전검사에서 화물트럭 총 305대의 과마모, 손상 및 수입, 재생타이어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과 비교하여 과마모와 손상타이어의 사용률은 다소 낮아진 반면 수입타이어의 사용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향후에도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타이어 안전 사용을 비롯한 자동차운행 안전, 국산타이어 사용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 우리협회, 한국고무학회 “창립40주년”기념식에서 감사패 수여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고무학회의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동 학회가 증정하는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당일 기념식에는 외부인사를 초청한 고무와 타이어 관련 특강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가 치러졌으며, 동 학회측은 감사패를 증정하면서 우리협회의 고무공업 발전과 동 학회와의 협력, 공로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